세무와회계저널
제26권 제1호 2025년 2월 pp.37～57
한국세무학회

https：//doi.org/10.35850/KJTA.26.1.02
ISSN 1738－3323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정현욱** · **변선영*****

〈요 약〉

본 연구는 당기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 사용된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개별 기업의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자료를 근거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회계)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t기의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에 있어 커뮤니케이션과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은 음(－)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의 경우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여 경영자로 하여금 재량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미래(t+1기)의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분석 하였다. 그 결과, t기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지만, t기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부호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이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낮출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미래의 법인세부담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결과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기여점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대면과 비대면)에 따라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이 상이한 관련성을 가진다는 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지배기구, 외부감사인, 커뮤니케이션, 내부감사기구

* 이 논문은 동아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아대학교 경영학과 부교수, biglotos@dau.ac.kr, 주저자
*** 동아대학교 국제무역학과 부교수, byeunsy@da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 2024년 12월 3일　　1차수정일 2025년 1월 31일　　게재확정일 2025년 2월 3일

Ⅰ. 서 론

본 연구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조세부담을 법인세부담액으로 측정하여 당기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미래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산출과정이 유사하므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박종국・홍영은 2009 ; 정현욱 2017). 즉, 회계이익의 증가는 과세표준의 증가로 연결되고, 과세표준의 증가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게 된다(정현욱 외 2014).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내부거래, 외국인투자자, ESG 활동,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 자율공시 및 보수주의)이 실제로 법인세부담액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정수진 외 2014 ; 안숙찬 2011 ; 곽태완・노준화 2008 ; 정현욱 외 2014 ; 정현욱・변선영 2022 ; 정현욱 2017).

특히, 곽태완・노준화(2008)는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 세무조정 과정에서 미래 가산(차감)할 일시적 차이에 영향을 미치므로, 당기의 법인세부담액과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고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당기의 경영자 이익조정은 미래의 조세부담과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5월 시행된 감사 모범규준에서는 외부감사인의 경우 경영진 없이 최소 분기별로 회의를 진행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특히, 新외부감사법(2018년 11월에 시행)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서면과 대면으로 구분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개별 기업들의 사업보고서에서는 2019년부터 '내부감사기구와 회계감사인 간의 논의사항'이라는 단어(wording)를 사용하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을 준용하여 지배기구를 내부감사기구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재무보고의 질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이익반응계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hen et al. 2008 ; 홍지연・김유진 2021 ; 김유진・홍지연 2021). 이와 일관된 결과로,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높아질수록 감사위험 및 회계부정(오류)의 발생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Cohen et al. 2002 ; Beasley et al. 2009 ; 이승재 외 2021).

특히, 심재연 외(2021)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품질을 제고시켜 이익조정을 낮춘다고 보고하고 있다. 김종근・김갑순(2020)은 감사위원회로 측정한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높아질수록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내부감사기구로 측정한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모형은 당기의 재량적 발생액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을 가진다는 곽태완·노준화(2008)의 연구를 준용하여, 법인세부담액은 t+1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실증분석에 사용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에 있어 커뮤니케이션 횟수와 법인세부담액은 사업보고서에서 공시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커뮤니케이션 횟수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미래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t기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t+1기의 법인세부담액과 음(−)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t기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t+1기의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효과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미래의 조세부담에 관련성이 있다는 실증적 자료를 제안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미래의 법인세부담에 상이한 영향을 끼칠수 있다는 자료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갖추었다. 제Ⅱ장에서는 선행연구(법인세부담액 및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검토와 가설설정을 제시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과 표본의 선정과정을 제시하였으며, 제Ⅳ장에서는 가설의 분석결과와 추가분석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제Ⅴ장에서는 결론, 시사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Ⅱ. 선행연구 검토 및 가설의 설정

1. 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선행연구

우리나라의 경우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의 산출과정은 절차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특징을 가지므로, 회계이익과 세무이익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박종국・홍영은 2009 ; 정현욱 2017). 즉, 회계이익의 증가는 과세표준의 증가로 연결되고 과세표준의 증가는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게 된다(정현욱 외 2014). 이러한 논리에 근거하여, 법인세부담액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회계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요인들(내부거래, 외국인투자자, ESG 활동,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 공시 및 보수주의 등)이 실제로 법인세부담액과 어떠한 관련성을 가졌는지 분석하고 있다.

안숙찬(2011)은 내부거래가 연결실체의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내부거래와 해외 내부거래의 규모가 높아질수록 연결실체의 법인세부담액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동현(2010)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동현(2010)은 상장지배회사의 경우, 전체 기업집단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내부거래를 이용하여 종속(subsidiary)회사에 소득을 이전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현욱 외(2014)는 국내기업의 외국인투자자들은 자본이득보다 배당소득을 선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배당의 재원이 되는 회계이익이 커질수록 배당의 수준은 높아지게 된다. 이에 정현욱 외(2014)는 외국인투자자들이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법인세부담액은 외국인지분율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외국인투자자들의 고배당 선호현상이 결과적으로 기업의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정현욱・변선영(2022)은 ESG 활동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ESG 활동은 비용의 지출이 수반되므로, 높은 수준의 ESG 활동은 회계이익에 부정적일 수 있다(이창섭 외 2021 ; 이중원・박철 2020). 하지만, ESG 활동은 소비자들에게 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공하여 기업에 대한 충성도를 높일 수 있다(박윤나・한상린 2021 ; Deng and Cheng 2019). 이는 ESG 활동의 경우 매출액을 증가시켜, 회계이익을 높이는 유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분석결과, ESG 활동은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ESG 활동의 경우 회계이익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곽태완・노준화(2008)는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한 대용변수로 재량적 발생액을 사용하여 재량적 발생액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 당기의 법인세부담액과는 관련성이 없지만,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는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태완・노준화(2008)는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 영구적 차이보다 일시적 차이와 관련

성을 가지므로, 당기의 재량적 발생액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한다.

박서윤 외(2013)는 우리나라의 경우 경영자의 이익조정(재량적 발생액) 수준과 자율공시수준은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는 자율공시수준의 경우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현욱(2017)은 t−1기의 자율공시수준과 t기의 법인세부담액 사이에는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정현욱(2017)은 국내기업의 경우 이익조정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자율공시수준이 높게 나타나므로, t−1기의 자율공시수준은 t+1기의 법인세부담액과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고한다.

정수진 외(2014)는 법인세부담액에 법인세율 인하와 보수주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인하 직전 연도에 보수주의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인세 인하 직전 연도의 보수주의 강화는 법인세부담액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하가 있으면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이용하여 전략적으로 조세를 부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와 가설의 설정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회계정보, 횡령(배임), 외부감사 그리고 정보비대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먼저,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회계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연구로는 Read and Raghunandan(2001), 홍지연・김유진(2021), Cohen et al.(2008) 그리고 김유진・홍지연(2021)이 있다.

Cohen et al.(2008)의 연구에서 외부(external)감사인과 경영자 및 감사위원회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재무정보의 품질을 높이는 유인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Beasley et al.(2009)의 경우, 기업이 외부감사를 수행하여도 회계오류가 나타나는 이유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불충분한 커뮤니케이션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Read and Raghunandan(2001)의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 등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할 경우, 재무보고의 질은 향상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또한, 홍지연・김유진(2021)에게서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사이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이익의 질을 제고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세용(2009)은 높은 발생액의 질은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김유진・홍지연(2021)은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이익반응계수(ERC)로 측정하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이익반응계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회계이익의 정보효과를 증가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김유진・홍지연(2021)은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은 재무정보의 질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Cohen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감사위원회 혹은 경영진 등이 외부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으로 수행할 경우, 회계부정의 발생 가능성은 작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승재 외(2021)는 외부감사인이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수준이 높아질 경우, 횡령과 배임의 적발 가능성(적발 규모와 횟수)은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현욱・변선영(2024)은 투자자들의 경우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정현욱・변선영(2024)은 지배기구를 내부감사기구로 측정하여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거래량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커뮤니케이션 빈도는 거래량과 양(+)의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거래량을 대신하여 일별 주가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설정하여 추가 분석하여도 일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투자자들의 경우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하여 다른 해석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박범진(2022)은 규제적 압력으로 인하여, 감사위원회의 모임횟수가 증가할 경우 감사인의 감사 효율성은 높아지고, 경영자의 기회주의 행동은 감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는 김종근・김갑순(2020), 심재연 등(2021) 및 홍준용 등(2022)에서도 일관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종근・김갑순(2020), 심재연 등(2021) 그리고 홍준용 등(2022)은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 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은 일관되게 감사품질을 높인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김정교 외(2011)는 외부감사인이 높은 감사품질을 제공할 경우 재량적 발생액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교 외(2011)는 감사품질이 제고될 경우 경영자의 이익조정 행위를 제한시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빈번한 의사소통이 감사품질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경우,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은 재량적 발생과 음(−)의 관련성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점에서 심재연 외(2021)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재량적 발생액(Dechow et al. 1995) 및 성과대응 재량적 발생액(Kothari et al. 2005)과 모두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곽태완・노준화(2008)는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 영구적 차이보다 일시적 차이를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즉, 곽태완・노준화(2008)는 재량적 발생액의 경우 세무조정 과정에서 일시적 차이를 유발하므로 당기의 법인세부담액과는 관련성을 가지지 않지만,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는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는 경영자가 당기에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하여 이익조정을 수행할 경우, 당기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될 유인보다 미래의 조세부담으로 연결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감사품질을 높여 재량적 발생액을 감소시키는 유인으로 작용할 경우,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미래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재량적 발생액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하므로, 당기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미래 법인세부담액과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음(−)의 관련성을 가질 것이다.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모형

아래의 식(1)은 가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이다. 본 연구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COM)에서 지배기구를 내부감사기구로 측정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식(1)의 COM1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였다. 따라서 COM2는 COM1에 '1'을 더하여 'ln(자연로그)'을 취하고자 하였다(이윤정 · 박종일 2022 ; 정현욱 · 변선영 2024). 그리고 조세부담은 법인세부담액(TB)으로 측정하였다.

$$TB_{i,t+1} = \beta_0 + \beta_1 COM_{i,t} + \beta_2 ESG_{i,t} + \beta_3 SIZE_{i,t} + \beta_4 SMO_{i,t} + \beta_5 CAP_{i,t} + \beta_6 BIG4_{i,t} + \beta_7 LEV_{i,t} + \beta_8 ROA_{i,t} + \beta_9 GRW_{i,t} + \beta_{10} FOR_{i,t} + \beta_{11} YD_{i,t} + \beta_{12} IND + \epsilon_{i,t} \quad \text{식(1)}$$

TB : 조세부담(법인세부담액/기말 자산총액)
COM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COM1 : 커뮤니케이션 횟수
COM2 : ln(COM1+1(one))
ESG : ESG 지표
SIZE : 기업의 규모(ln(기말 자본총액)
SMO : 이익유연화((−1)×{σ(5년 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σ(5년 간의 영업활동현금흐름)})

CAP : 자본집약도((기말 유형자산－기말 토지－기말 건설중인자산) / 기말 자산총액)
BIG4 : 감사품질(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수행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LEV : 부채비율(기말 부채총액 / 기말 자산총액)
ROA : 총자산이익률(당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 / 기말 자산총액)
GRW : 매출액증가율((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 전기 매출액)
FOR : 외국인 평균 보통주 지분율
YD : 연도더미
IND : 산업더미

식(1)의 분석결과가 본 연구의 가설과 일관될 경우, β_1의 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제시해야 한다. β_1이 유의한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경우,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 조세부담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현욱・변선영(2022)에 따르면, ESG 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법인세부담액을 높인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ESG 활동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ESG를 식(1)에 포함하였다.

Porcano(1986), 전규안(1997) 및 정현욱 외(2014)는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조세 전문가를 활용하여 효율적인 조세전략을 취할 경우, 기업규모는 조세부담과 음(－)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안숙찬(2011)은 기업규모의 경우 조세부담과 양(＋)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규모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SIZE를 식(1)에 포함하였지만, 기대부호는 예상하지 않는다.

마희영 외(2018)에 따르면, 회계정보의 질이 높은 기업의 경우 높은 세무이익을 보고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마희영 외(2018)는 회계정보의 질이 높으면 법인세부담도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회계정보의 질을 SMO로 측정하여 식(1)에 포함하였다.

식(1)의 CAP는 자본투자로 인한 세제혜택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다(안숙찬 1996 ; 노현섭 2003 ; 신승묘 2005 ; 정현욱 외 2014). 대규모 자본투자가 세제혜택의 효과를 높일 경우, CAP의 부호는 음(－)의 부호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최미화・이균봉(2010)은 감사품질이 높으면 기업의 조세부담은 조정될 유인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박미영(2012)은 감사품질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조세회피는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감사품질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효과를 통제하기 위하여 BIG4를 포함하였지만, 기대부호는 예측하지 않는다.

식(1)의 LEV는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를 통제하기 위함이다(Graham and Tucker 2006 ; 고윤성・백혜원 2010 ; 정현욱 외 2014). 이자비용의 절세효과는 조세부담을 낮추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LEV의 부호는 음(－)의 부호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총자산이익률과 매출액증가율의 증가는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되므로, 기업의 조세부담을 높이게 된다(정현욱 2017). 본 연구는 수익성의 개선효과가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ROA와 GRW를 식(1)에 포함하였다. FOR은 지배구조가 법인세부담액을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식(1)에 포함하였다. 정현욱 외(2014)에서는 국내 외국인투자자들은 보고이익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므로, 외국인지분율은 법인세부담과 양(+)의 관련성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인으로 FOR의 회귀부호는 양(+)의 부호를 제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식(1)에 포함된 YD와 IND는 연도 및 산업의 효과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다.

2. 표본의 선정

본 연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아래에 제시된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으로 표본을 구성하고자 한다.

(1) 유가증권 상장법인(12월 결산법인) 중 2019년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사업보고서에서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건수를 공시하는 기업
(2)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전자공시시스템의 사업보고서에서 법인세부담액을 공시하는 기업
(3) 한국 ESG 기준원에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ESG 점수를 공시하는 기업
(4) Kis-Value 데이터베이스(㈜한국신용평가정보에서 제공)에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감사법인과 재무자료 수집이 가능한 기업
(5) 감사의견이 적정이고, 자본과 법인세부담액이 양(+)인 기업

<표 1>은 표본의 선정과정이다. 조건 (1)에 해당되는 2,103개(기업-년) 기업 중 1,098개(기업-년) 기업과 193개(기업-년) 기업은 조건 (2)와 조건 (3) 그리고 조건 (4)와 조건 (5)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최종표본은 812개(기업-년)로 선정되었다.

〈표 1〉 표본의 선정과정

	조건 (1)에 해당되는 기업	2,103개(기업-년)
(-)	조건 (2)와 조건 (3)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1,098개(기업-년)
(-)	조건 (4)와 조건 (5)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	(-) 193개(기업-년)
	최종표본	812개(기업-년)

<표 2>는 최종표본(812개(기업-년))에 대한 연도별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2019년에는 257개(기업-년)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고, 2020년에는 273개(기업-년)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그리고 2021년에는 282개(기업-년) 기업이 표본으로 선정되었다.

新외부감사법(2018년 11월에 시행)에서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공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인으로, 본 연구는 新외부감사법이 도입된 이후 연도인 2019년부터 표본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표 2〉 표본의 연도별 분포

	2019	2020	2021	합계
합계	257	273	282	812

Ⅳ. 실증분석 결과

1. 기술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표 3>은 식(1)에 포함된 변수들의 기술통계량이다. TB의 평균은 0.0179로 나타났으며, 중위수는 0.010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표준편차는 0.0213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현욱(2017)의 경우 평균(중위수)은 0.0162(0.0106)로 보고하고 있고, 표준편차는 0.0203으로 보고하고 있어, 본 연구의 TB는 정현욱(2017)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COM1의 평균과 중위수는 3.7278과 3.0000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2.3495로 나타났다. COM2의 평균과 중위수는 1.4181과 1.3863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0.5634로 나타났다. 이윤정・박종일(2022)은 COM2의 경우 평균(중위수)과 표준편차를 1.267(1.099)과 0.276으로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COM2는 이윤정・박종일(2022)의 평균(중위수)과 표준편차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ESG의 평균(중위수)은 1.9791(2.0000)로 나타났고, SIZE의 평균(중위수)은 26.5708(26.3391)로 나타났다. SMO의 평균(중위수)은 −1.2605(−0.8621)로 나타났다. CAP의 평균과 중위수는 0.1596과 0.1246으로 나타났으며, BIG4의 평균과 중위수는 0.5271과 1.0000로 나타났다. LEV의 평균과 중위수는 0.4095와 0.4175로 나타났다.

ROA의 평균과 중위수는 0.0358과 0.0302로 나타났고, GRW의 평균과 중위수는 0.0334와 0.0324로 나타났다. 그리고 FOR의 평균과 중위수는 0.1024와 0.0552로 나타났다.

〈표 3〉 기술통계량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1분위수	중위수	3분위수	최댓값
TB	0.0179	0.0213	0.0000	0.0040	0.0106	0.0247	0.1910
COM1	3.7278	2.3495	0.0000	2.0000	3.0000	5.0000	17.0000
COM2	1.4181	0.5634	0.0000	1.0986	1.3863	1.7918	2.8904
ESG	1.9791	1.2527	0.0000	1.0000	2.0000	3.0000	5.0000
SIZE	26.5708	1.4413	23.4447	25.5727	26.3391	27.2005	31.6215
SMO	−1.2605	1.3031	−10.1830	−1.4934	−0.8621	−0.5061	−0.0409
CAP	0.1596	0.1428	0.0000	0.0451	0.1246	0.2393	0.8134
BIG4	0.5271	0.4996	0.0000	0.0000	1.0000	1.0000	1.0000
LEV	0.4095	0.2189	0.0006	0.2230	0.4175	0.5602	0.9997
ROA	0.0358	0.0720	−0.4849	0.0082	0.0302	0.0675	0.3929
GRW	0.0334	0.1903	−0.9282	−0.0525	0.0324	0.1254	0.8826
FOR	0.1024	0.1139	0.0003	0.0230	0.0552	0.1337	0.6477

주) 변수의 설명 : TB는 조세부담(법인세부담액/기말 자본총액), COM1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건수, COM2는 ln(COM1＋1(one)), ESG는 ESG 지표, SIZE는 기업의 규모(ln(기말 자본총액), SMO는 이익유연화((−1)×{σ(5년 간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σ(5년 간의 영업활동현금흐름)}), CAP는 자본집약도((기말 유형자산−기말 토지−기말 건설중인자산)/기말 자산총액), BIG4는 감사품질(big4 감사법인에게 감사를 수행 받은 기업이면 1, 아니면 0)), LEV는 부채비율(기말 부채총액/기말 자산총액), ROA는 총자산이익률(당기 법인세차감전순이익/기말 자산총액) 그리고 GRW는 매출액증가율((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FOR은 외국인 평균 보통주 지분율

<표 4>는 식(1)에 포함된 변수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결과이다. 본 연구의 주요한 관심변수인 TB와 COM(COM1과 COM2)은 유의한 상관관계가 가지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는 조세부담과 상관성이 없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다른 변수들의 효과가 통제된 결과가 아니므로 해석에 있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TB와 통제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분석해 보면, TB는 ESG, SIZE, BIG4, ROA, GRW 그리고 FOR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에, TB는 SMO, CAP 그리고 LEV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

<표 4>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VIF 값을 확인해 보았다. VIF의 최댓값은 2.65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임계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상관관계

	TB	COM1	COM2	ESG	SIZE	SMO	CAP	BIG4	LEV	ROA	GRW
COM1	0.0040										
COM2	0.0116	0.9067***									
ESG	0.1227***	0.4170***	0.3944***								
SIZE	0.0875**	0.4978***	0.4480***	0.6026***							
SMO	−0.0606*	−0.0264	−0.0564	−0.0237	−0.0491						
CAP	−0.1841***	0.0594*	0.0418	0.1962***	0.1915***	0.1273***					
BIG4	0.1024***	0.2516***	0.2105***	0.4413***	0.5252***	−0.0399	0.1651***				
LEV	−0.2083***	0.0572	0.0382	0.1035***	−0.0249	0.1236***	0.3187***	0.0253			
ROA	0.3998***	0.0298	0.0226	0.1047***	0.1242***	0.0344	0.0550	0.1067***	−0.1812***		
GRW	0.1623***	0.0578*	0.0579*	0.0480	0.0275	0.0188	−0.0103	0.0307	0.1163***	0.3205***	
FOR	0.1242***	0.2159***	0.1937***	0.3341***	0.5329***	−0.0420	0.1007***	0.2654***	−0.0595*	0.1827***	0.3205***

1) ***(1%), **(5%) 및 *(10%)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냄.
2) 변수의 설명은 <표 3> 참조.

2. 분석결과

<표 5>는 커뮤니케이션과 조세부담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표 5>에서 모형 1은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COM1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고, 모형 2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COM2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그리고 모형 1과 모형 2의 종속변수는 법인세부담액(TB)이다.

<표 5>를 분석해 보면, COM1과 COM2의 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사이에 있어 적극적인 커뮤니케이션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액과 음(−)의 관련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빈번한 커뮤니케이션은 미래의 조세부담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SG의 부호는 모두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정현욱・변선영(2022)의 결과와 일관된 것으로, 높은 ESG 활동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법인세부담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CAP의 부호는 모두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고 있다. 이는 기대와 일관된 결과로, 대규모 자본투자가 이뤄질 때 세제 혜택이 발생하여 법인세부담액이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LEV의 부호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를 띠고 있다. 이는 부채로 인한 이자 비용의 절세효과로 인하여 기업의 조세부담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ROA의 부호는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예측부호와 같은 결과로, 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질수록 기업의 조세부담을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FOR의 부호는 기대와 일관되게 모든 모형에서 유의한 양(+)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외국인투자자들의 경우 고배당을 획득하기 위하여 보고이익이 높은 기업을 선호하므로, 외국인 지분율과 법인세부담 간에는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원만한 커뮤니케이션은 미래의 법인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감사인의 감사품질을 높이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재량 발생액이 감소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할수록 재량 발생액을 이용한 이익조정이 억제됨에 따라 미래의 법인세부담은 감소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 가설 검증결과

$$TB_{i,t+1} = \beta_0 + \beta_1 COM_{i,t} + \beta_2 ESG_{i,t} + \beta_3 SIZE_{i,t} + \beta_4 SMO_{i,t} + \beta_5 CAP_{i,t} + \beta_6 BIG4_{i,t} + \beta_7 LEV_{i,t} + \beta_8 ROA_{i,t} + \beta_9 GRW_{i,t} + \beta_{10} YD_{i,t} + \beta_{11} IND + \epsilon_{i,t}$$

변수	모형 1(TB)		모형 2(TB)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0.0345	1.88*	0.0397	2.21**
COM1	**-0.0008**	**-2.36****		
COM2			**-0.0027**	**-1.94***
ESG	0.0017	2.34**	0.0017	2.32**
SIZE	-0.0003	-0.41	-0.0005	-0.65
SMO	0.0001	0.08	0.0001	-0.01
CAP	-0.0283	-5.32***	-0.0281	-5.29***
BIG4	0.0022	1.37	0.0022	1.34
LEV	-0.0081	-2.38**	-0.0083	-2.45**
ROA	0.1081	10.57***	0.1082	10.56***
GRW	0.0048	1.24	0.0049	1.26
FOR	0.0127	1.81*	0.0129	1.82*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F-값	16.20***		16.06***	
Adj.R^2	0.2417		0.2399	

1) ***(1%), **(5%) 그리고 *(10%)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냄.
2) 변수의 설명은 <표 3> 참조.

3. 추가분석

본 연구는 <표 5>에 나타난 결과에 대한 강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1)을 차분(△, 델타)형태로 변경하여 추가분석을 수행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아래의 식(2)는 식(1)을 차분의 형태로 변경한 것이다.

$$\begin{aligned}\triangle TB_{i,t+1} = {} & \beta_0 + \beta_1 \triangle COM1_{i,t} + \beta_2 \triangle ESG_{i,t} + \beta_3 \triangle SIZE_{i,t} + \beta_4 \triangle SMO_{i,t} \\ & + \beta_5 \triangle CAP_{i,t} + \beta_6 \triangle BIG4_{i,t} + \beta_7 \triangle LEV_{i,t} + \beta_8 \triangle ROA_{i,t} \\ & + \beta_9 \triangle GRW_{i,t} + \beta_{10} \triangle FOR_{i,t} + \beta_{11} YD_{i,t} + \beta_{12} IND + \epsilon_{i,t}\end{aligned} \quad \text{식(2)}$$

변수의 설명은 식(1) 참조.

<표 6>은 식(2)를 분석한 결과로, 모형 1과 모형 2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각각 △COM1과 △COM2로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6>에 따르면, △COM1과 △COM2의 회귀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를 갖고 있다. 이는 <표 5>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변수들을 차분 형태로 측정하여 분석하여도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법인세부담과 음(−)의 관련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변수들을 차분형태로 변환하여(식(2)) 분석한 결과

변수	모형 1(TB)		모형 2(TB)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0.0447	2.27**	0.0497	2.53**
△COM1	**−0.0009**	**−1.76***		
△COM2			**−0.0030**	**−1.71***
△ESG	0.0019	1.99**	0.0013	1.29
△SIZE	−0.0005	−0.66	−0.0007	−0.87
△SMO	−0.0021	−2.07**	−0.0021	−2.14**
△CAP	−0.0019	−1.85*	−0.0019	−1.83*
△BIG4	0.0026	0.81	0.0028	0.87
△LEV	0.0005	0.17	0.0001	0.03
△ROA	0.0179	3.99***	0.0182	4.05***
△GRW	−0.0150	−3.25***	−0.0150	−3.26***
△FOR	−0.0161	−0.50	−0.0135	−0.42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F−값	4.75***		4.74***	
Adj.R^2	0.1271		0.1267	

1) ***(1%), **(5%) 그리고 *(10%)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냄.
2) 변수의 설명은 <표 3> 참조.

다음의 <표 7>은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표 7>을 분석해 보면, 표본기업의 총(total) 커뮤니케이션 건수는 3,027건으로 나타났다. 총 3,027건의 커뮤니케이션 중 대면 커뮤니케이션은 1,646건으로 나타났고,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은 1,381건으로 나타났다.

<표 7>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중 서면 방식(전자문서와 E−메일 포

함)과 유선 방식(컨퍼런스 콜 포함)은 1,155건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화상회의(온라인 회의) 등의 방식은 226건으로 나타났다.

〈표 7〉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

구 분	건수(비율, %)
대 면	1,646건(54.4%)
비 대 면	1,381건(45.6%)
합 계	3,027건

<표 7>은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기업의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식(3)을 설정하여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기업의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TB_{i,t+1} = \beta_0 + \beta_1 F\text{-}COM_{i,t} + \beta_2 U\text{-}COM_{i,t} + \beta_3 ESG_{i,t} + \beta_4 SIZE_{i,t} + \beta_5 SMO_{i,t} + \beta_6 CAP_{i,t} + \beta_7 BIG4_{i,t} + \beta_8 LEV_{i,t} + \beta_9 ROA_{i,t} + \beta_{10} GRW_{i,t} + \beta_{11} FOR_{i,t} + \beta_{12} YD_{i,t} + \beta_{13} IND + \epsilon_{i,t} \quad \text{식(3)}$$

F−COM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F−COM1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
F−COM2 : ln(F−COM1+1(one))
U−COM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U−COM1 :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 횟수
U−COM2 : ln(U−COM1+1(one))
이외 변수는 식(1) 참조.

위 식(3)에서 F−COM(F−COM1과 F−COM2)는 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내고, U−COM(U−COM1과 U−COM2)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을 나타낸다. 이럴 경우, F−COM1과 F−COM2의 평균(중위수)은 2.0271(2.0000)과 0.8503(1.0986)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U−COM1과 U−COM2의 평균(중위수)은 1.7007(1.0000)과 0.7870(0.6931)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식(3)을 근거로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법인세부담액 사이에서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표이다. <표 8>에서 모형 1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F−COM1과 U−COM1로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모형 2는 F−COM2와 U−COM2로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측정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표 8>을 분석해 보면, F−COM1과 F−COM2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하지만, U-COM1과 U-COM2는 모형 1과 모형 2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사이에 있어 대면으로 통한 커뮤니케이션은 법인세부담액을 감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지만,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에 있어 비대면 형식의 커뮤니케이션은 법인세부담액과 관련성을 가지지 않음을 나타낸다. <표 8>에서 나타난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세부담을 감소시킨다는 결과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표 8〉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

변수	모형 1(TB)		모형 2(TB)	
	회귀계수	t-값	회귀계수	t-값
(상수)	0.0299	1.63	0.0333	1.85*
F-COM1	**-0.0012**	**-3.10*****		
F-COM1			**-0.0035**	**-3.15*****
U-COM1	**-0.0002**	**-0.40**		
U-COM1			**-0.0011**	**-0.89**
ESG	0.0017	2.39**	0.0018	2.46**
SIZE	-0.0002	-0.20	-0.0002	-0.33
SMO	0.0000	-0.04	0.0000	-0.06
CAP	-0.0278	-5.24***	-0.0279	-5.26***
BIG4	0.0015	0.92	0.0017	1.03
LEV	-0.0078	-2.30**	-0.0076	-2.24**
ROA	0.1075	10.54***	0.1074	10.52***
GRW	0.0044	1.14	0.0045	1.17
FOR	0.0135	1.91*	0.0133	1.89*
YD	포함		포함	
IND	포함		포함	
F-값	15.65***		15.64***	
Adj.R^2	0.2454		0.2453	

1) ***(1%), **(5%) 그리고 *(10%)은 통계적 유의수준을 나타냄.
2) 변수의 설명은 <표 3> 참조.

Ⅴ. 결 론

이 연구는 t기의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높아질수록 t+1기(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은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재량적 발생액을 이용한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업이 부담하는 조세가 낮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한 결과,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사이에서 커뮤니케이션 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이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은 경영자의 이익조정 유인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 방식으로 나누어 각각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t기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부호는 유의한 음(−)의 부호로 나타났다. 하지만, t기의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부호는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 횟수가 높아질수록 미래의 법인세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의 영향으로 나타난 결과라기보다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즉,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미래의 조세부담에 음(−)의 관련성을 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대면 커뮤니케이션의 효과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이 기업의 미래 법인세부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의사소통의 형태가 미래의 법인세부담이 상이한 관련성을 가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규제기관의 정책 결정 및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2018년 11월에 시행된 新외부감사법에 근거하여 표본 기간을 2019년부터 2022년까지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 기간에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특정 연도의 대면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과소 표집될 가능성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참고문헌

고윤성 · 백혜원. 2010.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7권 제2호 : 49－76.

곽태완 · 노준화. 2008. “재량적 발생액이 법인세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제17권 제3호 : 1－20.

김유진 · 홍지연. 2021. “외부감사인과 내부 감사기구 간의 상호작용이 이익반응계수에 미치는 영향”. 관리회계연구 제21권 제1호 : 1－23.

김종근 · 김갑순. 2020.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 빈도와 감사품질과의 관련성”. 세무와회계저널 제21권 제3호 : 29－48.

김종일. 2013. “이익조정이 수익비용대응의 적절성에 미치는 영향”. 세무와회계저널 제14권 제3호 : 9－28.

노현섭. 2003. “세율인하에 따른 유효세율 변동성의 결정요인 분석”. 세무학연구 제20권 제1호 : 101－125.

마희영 · 박종성 · 김우영. 2018. “수익비용대응과 법인세부담의 관계”. 회계정보연구 제36권 제3호 : 171－196.

박미영. 2012. “감사인 특성과 조세회피”. 세무와회계저널 제13권 제3호 : 191－219.

박서윤 · 이현주 · 정현욱 · 이강일. 2013. “자율공시수준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경영교육연구 제28권 제2호 : 17－55.

박윤나 · 한상린. 2021.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이미지, 지각된 가격 공정성 및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 경영학연구 제50권 제3호 : 643－664.

박종국 · 홍영은. 2009.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제26권 제1호 : 105－135.

신승묘. 2005. “유효법인세율과 부채비율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과 세법상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의 유효성평가”. 회계학연구 제30권 제4호 : 77－108.

심재연 · 유용근 · 유승원. 2021. “외부 감사인과 기업 지배기구간의 커뮤니케이션 정도가 감사시간, 감사 보수 및 기업 이익 조정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제99집 : 71－106.

안숙찬. 1996. “조세부담과 기업특성”. 세무학연구 제8호 : 125－152.

안숙찬. 2011. “조세부담과 기업집단”. 세무와회계저널 제12권 제4호 : 279－305.

이동현. 2010. “조세부담이 연결실체인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소득이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35권 제3호 : 147－182.

이세용. 2009. “발생액의 질과 회계이익의 정보효과”. 세무와회계저널 제10권 제4호 : 9－41.

이승재 · 김현정 · 최우석. 2021. “외부감사인과 지배기구간 커뮤니케이션이 횡령 및 배임의 적발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3권 제4호 : 1－39.

이윤정 · 박종일. 2022. “잠정실적의 수정 및 지배구조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직급별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 회계 · 세무와 감사연구 제64권 제2호 : 53－102.

이중원・박철. 2020. “기업의 사회적 책임 (CSR) 활동이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 직무만족도와 기업규모를 중심으로”. 경영학연구 제49권 제4호 : 913－937.

이창섭・정아름・전홍민. 2021. “ESG 결정요인 및 기업가치에 관한 연구 : 경제정책 불확실성과 영업이익 변동성을 중심으로”. 회계학연구 제46권 제6호 : 115－139.

전규안. 1997. “기업특성이 조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제22권 제4호 : 23－60.

정수진・김진태・심충진. 2014. “법인세율 인하가 보수주의와 법인세부담액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제27권 제6호 : 979－996.

정현욱. 2017. “자율공시수준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와회계저널 제18권 제6호 : 129－149.

정현욱・변선영. 2022. “기업의 ESG 활동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정현욱・변선영. 2024.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의사소통이 투자자들 간의 상이한 믿음에 미치는 영향”.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제66권 제1호 : 75－109.

정현욱・이현주・이강일. 2014. “외국인지분율과 법인세부담액 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31권 제1호 : 105－133.

최미화・이균봉. 2010. 감사품질 및 회계보수성과 조세적 유인”. 대한경영학회지 제23권 제2호 : 927－953.

홍지연・김유진. 2021. “외부감사인과 내부감사기구와의 상호소통 방식 및 사회적 관계가 피감사 기업의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제39권 제2호 : 1－26.

Beasley, M. S., J. V. Carcello, D. R. Hermanson, and T. L. Neal. 2009. The audit committee oversight proc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26(1) : 65－122.

Cohen, J., G. Krishnamoorthy, and A. M. Wright. 2002. Corporate governance and the audit process.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19(4) : 573－594.

Cohen, J., L. M. Gaynor, G. Krishnamoorthy, and A. M. Wright. 2008. Academic research on communications among external auditors, the audit committee, and the board :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practice. *Current Issues in Auditing* 2(1) : A1－A8.

Deng, X. and X. Cheng. 2019. Can ESG indices improve the enterprises’ stock market performance? An empirical study from China. *Sustainability* 11(17) : 1－13.

Graham, J. R., and A. Tucker. 2006. Tax Shelters and Corporate Debt Policy.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81(3) : 563－594.

Porcano, T. 1986. Corporate Tax Rates : Pro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the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spring : 17－31.

Read, W., and K. Raghunandan. 2001. The State of Audit Committees. *Journal of Accountancy* 191(May) : 57－60.

The Effect of Communication between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External Auditors on the Tax Burden*

Hyun Uk Jung** · Sun-Young Byun***

<Abstract>

We empirically tested the hypothesis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external auditors will have a negative relationship with future tax burden. The number of communications between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external auditors used in the empirical test is measured as the number of communications between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and external auditors, based on data disclosed in individual companies' annual reports.

As a result of the test, the regression sign of communication between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and external auditors is found to be significantly negative (−). This can be interpreted as active communication between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external auditors lowering the level of discretion, thereby lowering future tax burden.

We additionally divided communication methods into face-to-face and non-face-to-face methods and tested how each communication method affected future tax burden. As a result of an additional test, the regression sign for the face-to-face communication method is found to be a significant negative (−) sign, but the regression sign for the non-face-to-face communication method is found to be insignificant. In this respect, it is believed that our main result is the effect of the face-to-face communication method.

We believe that our contribution will be in that we provide results showing that communication between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and external auditors can affect the future corporate tax burden of a company. Specifically, we believe that our results will provide useful data for policy decisions by regulators and decision-making by investors, as we provide empirical evidence that the method of communication has different relevance to future corporate tax burden.

<Key words> Those Charged with Governance, External Auditors, Internal Audit Organizations

* This work is supported by the Dong-A University research fund.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Business, Dong-A University, biglotos@dau.ac.kr, First Author

*** Associate Professor, School of International Trade, Dong-A University, byeunsy@dau.ac.kr, Corresponding Author